

한신대생들 불교나들이

'불교의 이해' 수강생 25명 감사서 템플스테이

10월 29일 저녁 공주 감사. 저녁 예불 시작을 알리는 사물(四物)이 울리자 30평 남짓한 법당에 황색수련복을 입은 학생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불에 참석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법당 밖에서 다른 학생들의 예불모습을 지켜보았다. 종교가 달라 예불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올 2학기부터 시작된 신실 강좌 '불교의 이해'를 수강중인 한신대 대학생 25명의 1박2일 템플스테이는 그렇게 시작됐다.

잘 몰랐던 불교의 형식과 철학적 깊이를 새롭게 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

할아버지가 한신대의 전신 '조선신학교'를 나와 3대가 한신대 동문이라는 강승구(신학과 3) 학생은 "지금까지 하나 남깨만 갈구하던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이틀간의 사찰체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학교 측의 비상식적 대응을 성토했다, 사회와

기독교계 대학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교양과목인 이 강좌의 수강생은 110명가량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이번 템플스

**기독교계 대학생 첫 사찰체험
일부학생 예불 불참하기도
참선 등 실천적 수행 긍정적**

교단의 모순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찰 체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

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지자의 이름을 가진 오바다(종교문화학 2)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의 참선이나 호흡법 같은 실천적인 수행의 전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교간 벽을 허물기 위한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들의 노력이 낫설지 않은 요즘 기독교대학에서 불교관련 강좌가 개설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강좌제목에 '불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목은 국내 처음이다.

강의를 맡고 있는 이호원 강사는 "학생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종교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의 성과에 만족해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지자의 이름을 가진 오바다(종교문화학 2)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의 참선이나 호흡법 같은 실천적인 수행의 전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교간 벽을 허물기 위한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들의 노력이 낫설지 않은 요즘 기독교대학에서 불교관련 강좌가 개설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강좌제목에 '불교'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목은 국내 처음이다.

강의를 맡고 있는 이호원 강사는 "학생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종교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의 성과에 만족해했다.

유범식(신학과 1) 학생은 "지금까지

공주=조용수 기자



수련복을 입은 한신대생들이 불교무술 특강에서 여러 가지 동작과 호흡법을 배우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세상 가꾸자

금산사 1405주년 개산대제 '미륵 10선계 보살수계식' 봉행

미륵성지 김제 모악산 금산사주지 평사는 11월 2일 개산 1405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한공대제와 미륵10선 수계식을 봉행했다.

대작광전 앞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성태(불국사 회주), 도영(조계종 포교원장), 정택(웅주사 주지) 등 스님 100여명과 김완주 전주시장, 유성업 정읍시장, 관인회 김제시장 등 지역기관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2000여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에서 "우리 사회는 중생심 때문에 갈등에 휩싸였다"며 "부처님의



금산사 개산대제 법요식 모습.

가르침에 따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가꾸어 가자"고 당부했다.

개산대제에 이어 방등계단에서 열거지 선행을 뒤야 정진을 다짐하는 '미륵 10선계 보살수계식'이 봉행됐다.

이준엽 기자

지역민 모두의 수행공간으로...

화순 전남대병원 법당 개원

화순 전남대 병원(병원장 강영근)은 10월 29일 지하 1층 종교실에 불교법당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개원식에는 법회승 지원실장, 간호부장 등 병원관계자와 현장(자비신행회 이사장), 보화(화순불교사임단 회장)스님 등 지역사람 대표, 자원봉사자가 참석했다.

법당 개원에 앞서 지도법사 일장 스님(유마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병원 법당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병원임직원, 자원봉사자, 지역민 등 모두의 수행공간이다"며 "자비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기에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개원식에 이어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화순병원 법당 개원을 기념하는 '희망나눔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병원 법당에서는 정기법회(금요일), 간병,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061)379-7932

이준엽 기자

쌍계사, 국화展 20일까지

진도 쌍계사주지 진현 국화전시회가 10월 30일 개막됐다. 진도 소리여행 템플스테이를 겸한 개막식에는 지역 사암 스님들과 김경부 진도 군수를 비롯한 지자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쌍계사 국화전시회는 진현 스님 신도들과 함께 손수 가꾼 대국, 소국, 국화 분재 등 500여점이 전시되며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061)542-1165

이준엽 기자

태고종, 남원성 순국선열 추모

남원성을 지키다 순국한 선열의 넋을 기리는 영산대제가 11월3일 남원에서 열렸다.

태고종 전북총무원(원장 황산)은 이날 만복사 광장에서 '호국영령 영산대제 및 국태민안 기원 영산법회'를 봉행했다.

만복사지 법당지에 괘불을 세우고 열린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원로회장 남파 스님을 비롯한 관내 100여개 사암 스님과 최진영 남원시장 등 지역 기관

장, 재가신도 1000여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남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선조'들의 뜻을 이어 더불어 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생활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광보사, 농민 위로잔치 열어

땅갈 해남의 작은 사찰 광보사(주지 자항)가 10월 25일 가을걷이에 지친 지역민을 초청해 '부처와 대중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문화 잔치 한마당을 펼쳤다.

해남 육천면지역 주민과 신도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가을잔치는 만등법회에 이어 광주가톨릭대 교수 조용대 신부의 사회로 소프라노 최준미씨와 아그네스 중창단의 가곡이 선 보였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부르고 즐기는 노래잔치가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일산 여래사

법향 가득 풍기는 복합문화공간



일산지역 불자들이 여래사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듣고 있다.

2000년 개원한 불보사찰 통도사의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주지 각현). 여래사를 보통 흔한 도심포교당으로 생각하고 찾아온다면 일단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신식 법당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상시 가능한 230석 규모의 극장과 주변 여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 내내 영화 상영과 연극 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 바로 여래사인 셈이다.

이런 여건을 갖췄기에 여래사는 경기도내 성당, 교회들과 함께 올 3-8월

한 가운데 공연될 수 있었다. 또한 일산시민들과 불자들이 문화 행사에 참가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여래사가 문화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문화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맘마미야'란 뮤지컬을 공연한 극단 '신시'를 몇 해 전부터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희극배우와 퓨전 클래식 팀, 마술 팀들에게 연수·공연 공간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들 단체들도 틈만 나면 무료공연을 해주는 등 여래사를 문화도량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템플처치' 프로그램 운영...영화·연극 상설 공연
문화단체 지원·이발봉사 등 다양한 활동 추진**

매달 3, 4회씩 재즈, 음악회 등 공연을 선보이는 '템플 처치 (Temple-Church)'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가 공연단체들에게 2천만 원씩 지원, 지방 공연장에서 활동해 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행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난 때문에 많은 단체들은 연습장소는 고사하고라도 공연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 때 여래사의 훌륭한 문화 인프라는 이런 어려움 극복에 특목하게 기여했다. 그 때문에 템플처치 프로그램 개막작인 '양덕원 이야기'가 3월 여래사에서 백도웅 목사와 신부수녀 등 수많은 이웃 종교인들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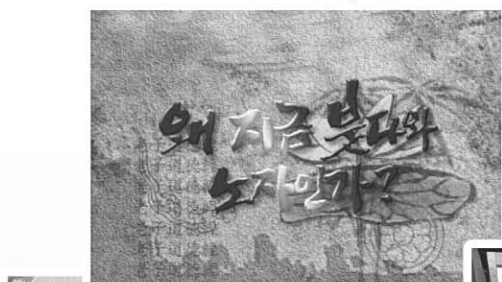
여래사는 내년부터 풀 운영에 변화를 준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여래사의 존재를 꾸준히 알리려왔지만 불자들의 참여가 예상보다는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해 이웃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도 합창단, 사물놀이 전통무용 이발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신형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갖추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래사 주지 각현 스님은 "신도시 불자들은 대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정신은 부족한 것 같다"며 "자기 희생하는 마음을 심어 조금씩이라도 봉사하는 실행활동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일산=강유신 기자

Btⁿ 불교TV

불교TV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목 08:20 13:10 19:30



부처님 경전이야기
금토 16:10



순경락 변호사의 법륜이야기
화 09:20 20:30



절로 가는 길
금 08:20 13:10 19: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금 09:20 15:10 20:30



경우근스님의 아미타경 특강법회
수 12:00 17:30 22:10



우리시대의 장인
격주 금 12:00 17:30 22:10

불교TV 제작부 TEL : 02-3270-3452~3457

www.btn.co.kr